

#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중대재해 예방 위한 결의대회 실시

⌘ 장병욱 기자 | Ⓞ 승인 2026.05.07 12:29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천지사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시공사와 함께하는 '4KS 실천하기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감독원과 각 지구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무재해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4KS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각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KSG 안전지킴이'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간의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병행하여, 안전사고 없는 현장은 물론 부패 없는 투명한 건설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전춘희 영천지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시공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청렴하고 안전한 농어촌 건설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장병욱 기자

---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